

해외동역단체 소개_01

라오스 글로벌 대학교 설립을 바라보며

(Laos Global University, LGU)

이종범 교수는 라오스 글로벌 대학교(LGU) 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라오스 정부로부터 LGU 설립승인을 통보받았다(편집자 주).



이종범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1. 라오스는 어떤 국가인가?

라오스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국가로서 주변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로 둘러싸인 바다가 없는 국가이다.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정도이며, 인구는 약 600만 정도이다. 종교는 90% 이상이 불교로서 곳곳에 절이 있으며 기독교는 2% 정도에 불과하다. GDP는 138위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 중 하나여서 일부 계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은 약 5억 달러 정도이며, 1995년에 우리나라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국토의 북부는 대부분이 산지이고, 태국과는 넓고 긴 메콩강으로 국경선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11-1월은 비교적 서늘하나 5-9월은 우기로서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열대성이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일본 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전쟁 시절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잇는 수송로가 라오스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군사개입 함으로써 내전이 격화되었다. 그 이후 라오스는 미국에 완강히 저항한 후 1975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해방세력이 전면 승리를 거두고 인민정

권이 들어서면서 같은 해 라오스에도 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현재 라오스에는 약 500여명의 한국교민이 살고 있다.

선교적으로는 1975년 이후 모진 박해를 받았으나 성장하여 현재 전국에 약 200개의 교회와 2만 5천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선교사들

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NGO나 사업(학원, 회사경영 등)활동을 통하여 구제 및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2. 왜 라오스에 LGU를 설립하여야 하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여 삶을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라오스도 우리의 1960년대와 같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라오스 내에서 많은 국내 우수 기술인재들이 배출된 후 이들에 의해 인프라 사업이나 산업화가 주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라오스 현지에 최고의 과학기술 중심의 글로벌 대학교가 설립된 후 여기에서 라오스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아 바른 생각, 기독교적 가치관을 간직한 후



우수한 인재로서 자신들 조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복음에 빛진 자로서 선교적 헌신과 열정은 물론 선진교육경험과 기술적 능력을 소유한 우리나라 및 해외 교수진에 의하여 운영되는 최초의 4년제 정규 사립대학교가 라오스 수도에 설립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라오스의 산업과 경제발전 및 국민의 문명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대학설립목적인 영적 불모지 라오스에 영적 부흥과 복음, 문명의 발원지를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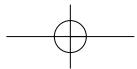
라오스가 현재 영적으로 부흥하였고, 대학이 많으며, 산업이 발달한 국가라면 굳이 대학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동남아시아를 보면 미얀마에는 대학이 많고, 군사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지식인을 오히려 편박하며, 수도를 비밀리에 옮기는 등 극히 폐쇄적이다. 태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대학도 많으며, 베트남도 산업이 급성장하며 대학도 많다. 캄보디아도 대학이 제법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에 대학이라고는 수도 비엔티안에 라오스국립대학교(NUOL) 한 개뿐이며, 북쪽 루앙프라방에 수파노방 국립대학이 최근에 개교되었을 뿐이다. 그 이외에

는 수도에 한 전공을 특성화 시킨 소규모 2년제 대학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형 학원 수준이다. 한편 라오스는 불교적 미신을 믿는 등 영적으로 암흑기이나 종교적 개방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수출품으로는 공산품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산품도 거의 없다. 산악지대라 수력발전 자원이 많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인근 태국과 베트남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다. 국가는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국민들은 밝고 쾌활하며 온순하여 미래의 비전이 있는 국가여서 설립의미가 가장 큰 국가이다. 이런 곳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념으로 글로벌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라오스는 물론 동남아시아의 영적 부흥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달성시키는 등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중요한 기관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LGU는 수도 비엔티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3. LGU 설립이념 및 운영핵심요소

LGU의 설립이념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의 발



전을 주도할 전문인재 양성, 둘째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인재 양성, 셋째 국제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문인재 양성이다. 한편 대학의 설립이념 및 교육철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LGU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대학운용 핵심요소로 할 예정이다.

● 국제협력중심

이 세대는 국제화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국제화의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며, 우리나라라는 물론 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소 등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 산학연협력중심

살아있는 과학기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현장의 경험들이 학교에 제공되고 또한 학문적 내용들이 현장에 제공되는 학교와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 실험교육중심

과학기술교육의 특성상 실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험을 철저히 하여 과학기술적 감각을 소유하며, 관련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 재교육중심

졸업 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문, 발전된 학문을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지식을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주도적으로 한다.

● 섬김교육중심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기독교정신인 섬김과 봉사정신을 소유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한다.

4. LGU의 설립규모

LGU는 약 10만평 이상의 규모에 1차로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설립하며 점차 상경계열과 생명자원(농학), 인문계열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학계열의 학부는 라오스의 국가경제 및 산업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 인프라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학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토목건축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식품공학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장차 건축될 예정인 LGU 캠퍼스 조감도이다.



LGU 조감도

5. 현재까지의 LGU 설립 추진상황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에 사립대학을, 더군다나 선교적 기반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벽이 따른다. 따라서 선교적 접근은 외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설립이후 운영단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라오스에 LGU를 설립하기 위해 라오스 교육부 담당국장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브리핑하였으며 주한 라오스대사관에도 여러 차례 브리핑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주한 라오스 대사관을 통해 라오스 교육부에 접수하였다. 설립을 보다 조직화 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LGU 설립위원회를 2008년 4월에 발족하였으며, 라오스 교육부로부터 2008년 5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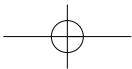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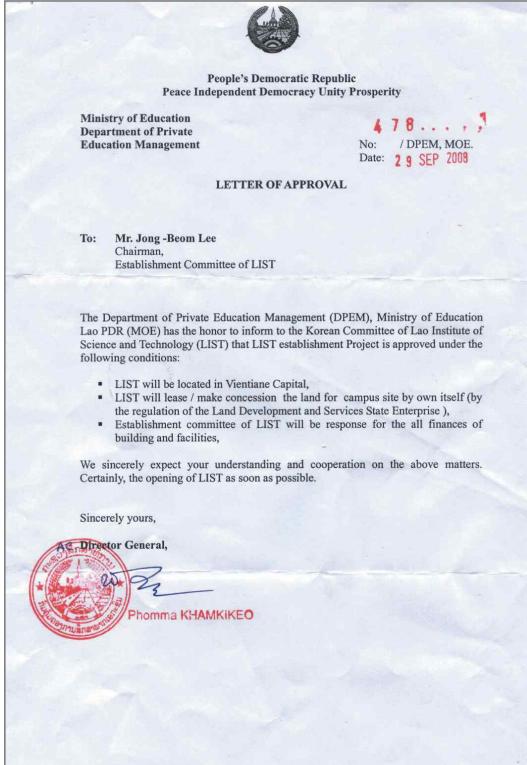


사진 상. 교육부차관과 LGU설립 공식논의
사진 하. LGU설립위원회 발족예배기념사진



설립승인서

설립승인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학설립을 위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현신 할 전문가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으로부터 초기 재정지원협약은 이루어졌으나 많은 재정 확보를 위한 크리스천 기업들의 참여 등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6. 기도제목

LGU 설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연차적으로 5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약 2013년 개교 목표로 준비되어가는 LGU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학설립의 비전을 공유한 라오스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부지확보 등 대학설립을 추진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해 줄 선교적 비전과 혁신된 크리스천 기업가가 참여하며 선교적 열정을 소유한 교수요원과 행정요원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훗날 LGU가 라오스는 물론 동남아시아의 영적 부흥과 문명발전의 발원지가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랑하며 존경하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